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 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하위 연구에 걸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분노표현양식을 기준으로 어떤 하위유형 집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문제와 행복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연구 1($n = 90$)에서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 집단 3(높은 분노 관여 집단), 그리고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의 네 집단이 나타났다. 집단 간에 대인관계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보였다. 연구 2($n = 93$)에서는 연구 1의 군집분석 결과를 확인적 차원에서 교차타당화 하기 위해 다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1과 동일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 나타난 집단과 비슷한 패턴의 네 집단이 나타났다. 네 집단 간에 행복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의 행복지수가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분노표현양식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문제, 행복, 군집분석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설령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강도의 분노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노가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관계유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감정의 솔직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표현하려 할 것이다. 최근 분노와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이 느끼는 분노 그 자체보다는 각 개인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및 Crane(1983)은 분노 표현양식을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control)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아울러 본 연구의 일부 내용은 2011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심리연구실습' 수업(담당 지도교수: 이동귀)에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이동귀,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02) 2123-2437
E-mail : lee82@yonsei.ac.kr

저 ‘분노억제’는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분노표출’은 타인이나 대상에게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 모욕 등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분노조절’은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며 상대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면서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인 언어적 형태로 분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노표현방식은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대인관계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Campos, Campos, & Barrett, 1989; Kalat & Shiota, 2007; Lerner & Dodge, 1993) 한 사회의 ‘정서 표현 규칙’(Display Rule: Ekman & Friesen, 1969)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서 표현 규칙이란 정서 표현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관습을 말하며 이러한 규칙은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정서를 약화시키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완전히 숨기도록 규정하여(Ekman, 2003) 실제 감정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다른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끼어들면 나는 분노를 느끼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기 보다는 조용히 참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분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렇듯 정서의 표현은 개인이 느끼는 내적인 정서 상태보다는 사회적 동기나 의도에 의해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되는데(Fridlund, 1997; Kappas, Bherer, & Theriault, 2000), 정서 중에서도 특히 분노는 대인 관계적 정서(interpersonal emotion)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조절되어 표현된다(조금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 동기와 의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실은 분노표출에 관한 표현 규칙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라 할지라도 개인이 느끼는 내적 정서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자기실현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내적 정서의 표현은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 조금호, 2003). 이에 반해 관계의

화목과 조화 및 집단의 통합을 강조하는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내적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은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위험성이 큰 정서라고 인식되어(Matsumoto, 1989; Matsumoto & Ekman, 1989; Matsumoto, Kudoh, Scherer, & Wallbott, 1988), 내집단원들 사이에서 분노를 경험하고 표출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하게 여겨진다(Markus & Kitayama, 1991; 1994). 예를 들면, Matsumoto(1989)는 일본의 대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의 표출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집합주의 사회에 속하는 북극지방의 우트쿠 이누이트(Utku Inuit)족이나 남태평양의 이팔루크(Ifaluk) 원주민들은 살면서 분노를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Briggs, 1970; Lutz, 1988; Oatley, Keltner, & Jenkins, 2006).

그러나 집합주의 사회에서 분노의 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서 통제와 관련된 Gross(2001)의 ‘정서 통제에 대한 절차 모형(A 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에 의하면 정서 통제는 보통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평가(Reappraisal)’와 ‘억제(Suppression)’가 그것인데, 전자의 전략은 외부 상황으로부터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가 자기 자신에게 경험적, 행동적, 혹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재해석하는 전략을 말하고, 이에 반해 후자의 전략은 외부로부터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가 이미 본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억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평가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ross, 199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분노억제는 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개인의 내부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므로 정서 통제 전략 중 억제 전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하진 않지만 내적으로는 분노를 경험함을 시사한다.

한편, 분노를 내적으로 경험하지만,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분노억제의 결과의 측면에서 비일관적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내부에 존재하는 분노의 감정을 습관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습관적인 분노의 억제는 면역체계 약화로 인한 신체적 질환을 유발시키거나(Pennebaker, 1985), 암의 발생(Cox & McCay, 1982; Jensen, 1987; Glese-Davis & Spiegel, 2001), 혹은 심장 관련 질환(Friedman & Booth-Kewley, 1987; Goldstein, Edelberg, Meier, & Davis, 1988)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스스로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Gross & John, 2003). 이에 반해 다른 일군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거부하며 분노억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정 정서를 억제하지 않고 표출하는 사람들은 보통사람들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많이 불안해하고(Jerome & Liss, 2005), 의사소통에서도 정서표현을 억제하지 못해 이혼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Gottman, 1993). 아울러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들보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Bell & Byrne, 1978), 분노억제의 실패가 분노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노억제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들은 분노억제의 패턴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King과 Emmons(1990)가 제안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양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정서의 표현 그 자체보다는 표현에 대한 갈등 및 억제가 문제라고 주장한다(King & Emmons, 1990; 1991). 따라서 분노억제에 의한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간의 관계는 분노를 억제하는 표현방식 자체보다는 기저에 존재하는 분노표출에 대한 갈등과 억제에 기반한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분노표현방식에 어떠한 개인차가 존재하고, 그 차이에 따라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한국이 집합주의 문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분노표현방식 중에서도 분노억제가 중요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일하게 분노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동기에 따라 혹은 양가성의 존재에 따라 정신건강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노표현방식의 각 하위 요인들을 군집변인(clustering variables)으로 투입하여 군집분석¹⁾을 실시하고, 그 결과 개인의 분노표현양식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하위집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분노표현양식을 분석함에 있어 군집분석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분노표현방식의 하위

1)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대상(사람)을 특정한 특성의 측면에서 유사한 대상끼리 한 하위집단 내에 속하도록 하고 차별적인 대상은 다른 하위집단에 속하도록 분류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의 하나이다(Hair & Black, 2000). 대상을 유사성 행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natural groupings)'으로 분류함으로써 집단을 인위적으로 분류(예, 평균이나 중앙치를 근거로 고저 집단 분류)할 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사람(대상) 중심' 기법으로 '개인차'에 관심을 둘 때 유용한 기법이다. 이는 '변인/차원 중심'의 기법, 예를 들어 변인 간 예측(prediction)에 관심을 두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는 그 목적이 다르다. 회귀분석에서는 개인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즉 분노표현양식의 측면에 따른 개인차 탐구/하위집단 분류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 보다는 변인 간 예측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 군집분석이 주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때로 이론적 근거 없이 특정 척도의 하위차원 점수들을 투입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집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어떤 변인을 군집변인(clustering variables)로 투입하느냐,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선행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분노표현양식에서 개인차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과 이러한 개인차가 정신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대인관계문제와 행복지수)의 측면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관심을 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러 측정도구의 하위 차원들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단일 측정도구의 하위 차원들만을 투입한 이유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더 선명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Cohen, Chartrand 및 Jowdy(1995)의 제안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요인 혹은 하위 차원 그 자체보다는 각 하위 요인들 내에서의 '개인차'를 확인하고 이 개인차를 반영하는 하위집단들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차별적인 특성이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 표현양식의 문항들이 각 하위 요인들 간의 상호배타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8)도 군집분석 방법을 고려한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분노억제를 측정하는 문항 중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라는 문항과 분노표출을 측정하는 문항 중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나는 문을 팡 닫는 식의 행동을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만약 화가 났을 때 똥해지고 토라지며, 동시에 문을 팡 닫는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 문항 모두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화가 났을 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문항 모두에 낮은 점수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각 하위 요인들이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분노표현양식을 분석할 때 세 하위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별 프로파일에 따라서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 하위집단이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을 통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하위집단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그 집단들이 대인관계문제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1에서 도출된 하위집단이 연구 2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각 집단 간에 행복지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양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군집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각 하위집단이 대인관계 문제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90명(남 33, 여 57)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57세($SD = 2.20$)였고, 설문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분노표현양식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Korean version; STAXI - K). Spielberg 등(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8)을 사용하였다. STAXI - K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Anger-In)(8문항), 분노표출(Anger Out)(8문항), 분노조절(Anger-Control)(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상태분노를 제외한 분노표현양식(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한다. 각 하위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그 분노표현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항 간 내적합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73(분노표출), .78(분노억제), 그리고 .79(분노조절)이었다.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식을 나타내는 문항 중 분노표출에 해당하는 문항은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가 있고, 분노억제는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분노조절에는 "나는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한다."와 같은 것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0이었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분노표출 .81, 분노억제 .82, 분노조절이 .77이었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ee(2003)에 의해 번안, 타당화된 대인관계문제 질문지

단축형(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Short Circumplex Form; IIP-SC)을 사용하였다. IIP-SC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형식이다. 1은 '전혀 아님', 5는 '매우'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IIP-SC는 각 개인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8개의 하위척도(거만, 악의, 냉정함, 회피, 비주장, 착취, 과잉보호, 참견)으로 구성되어있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및 Vilasenor의 연구(1988)에서 α 계수는 .88에서 .89로 보고되었으며 3달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분노표현양식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노표현양식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하위 요인들의 중심 값은 다시 K-평균 군집분석의 초기 값으로 투입되어 최종군집을 얻는데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대인관계 문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IIP-SC의 하위 요인(거만, 악의, 냉정함, 회피, 비주장, 착취, 과잉보호, 참견)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에 따른 집단 구분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 하위 요인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을 군집변인으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워드(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계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개 또는 4개의 집단의 존재가 제안되었으며, 군집화 계수의 변화폭과 해석가능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4개 집단을 채택하였다. 2단계에서는 각 집단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s)으로 투입하여 K-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1은 30명(33.3%), 집단 2는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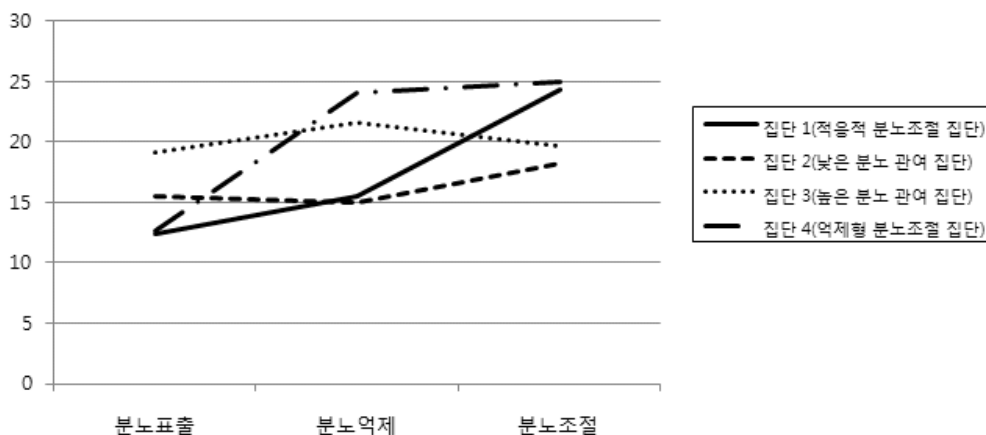


그림 1.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 점수에 따른 집단 패턴

(26.7%), 집단 3은 23명(25.6%), 집단 4는 13명(14.4%)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집단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chi^2(3, N = 90) = 6.11, p > .05$).²⁾

각 집단의 특징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점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은 분노표출($M = 12.40, SD = 2.51$)과 분노억제($M = 15.50, SD = 2.04$)는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분노조절($M = 24.37, SD = 1.99$)은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분노조절이 다른 두 표현방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이 집단은 분노조절의 기능적인(functional) 측면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Biodeau, 1992; Gottlieb, 1999)와 함께 이후 분석에서 가장 적응적인 결과를 보여준 점을 고려하여 ‘적응적 분노조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에 내재하는 탐색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의 이름을 명명할 때에도 이후 행해진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각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집단 2는 분노표출($M = 15.50, SD = 2.04$), 분노억제($M = 14.96, SD = 2.22$), 그리고 분노조절($M = 18.25, SD = 2.17$)의 모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분노라는 감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집단 2를 ‘낮은 분노 관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집단 1과 달리 분노표출($M = 19.09, SD = 3.74$), 분노억제($M = 21.65, SD = 2.80$), 그리고 분노조절($M = 19.70, SD = 2.62$)의 모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집단 3을 ‘높은 분노 관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4는 분노

표출($M = 12.69, SD = 2.14$)은 낮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분노억제($M = 24.08, SD = 2.33$)와 분노조절($M = 24.92, SD = 3.01$)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집단 1과 달리, 집단 4에 속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며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집단 4를 ‘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집단차이 비교

각 집단이 대인관계문제 점수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4개의 집단이었고 종속변인은 8개의 IIP-SC 하위 척도였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F(108, 8200.79) = 1.16, p > .05$), Wilks' 람다 값은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효과(overall effect)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Wilks' $\lambda = .49, F(24, 229.73) = 2.70, p < .001$, 부분 $\eta^2 = .21$]. 네 집단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거만, 착취, 비주장, 회피, 냉정, 악의 차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F(3, 86) = 4.29, p < .05$; $F(3, 86) = 4.00, p < .05$; $F(3, 86) = 3.38, p < .05$; $F(3, 86) = 9.48, p < .05$; $F(3, 86) = 4.44, p < .05$; $F(3, 86) = 15.63$, 모든 $ps < .05$).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및 각 집단별 대인관계문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거만 차원은 집단 3(높은 분노 관여 집단)이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보다 높았고, 착취와 비주장 차원은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보다 높았으며 회피 차원은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다른 모든 집단보다 높았다. 냉정 차원에서는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보다 높았으며 악의 차원에서는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집단 3(높은 분노 관여 집단)이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순으로 나타났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집단별 대인관계문제 점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2) 일반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지만, 군집변인이 STAXI-K의 하위척도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STAXI-K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다. 최임정, 심혜숙(2010) 연구에서 분노표출은 $M = 15.93(SD = 4.59)$, 분노억제는 $M = 17.06(SD = 4.63)$, 분노조절은 $M = 20.47(SD = 4.49)$ 이었고, 아울러 백승혜, 현명호(2008) 연구에서는 분노표출은 $M = 15.24(SD = 3.59)$, 분노억제는 $M = 17.89(SD = 3.64)$, 분노조절은 $M = 21.38(SD = 4.08)$ 로 나타났다.

표 1. 분노표현양식 하위집단별 대인관계문제 점수 비교

구 분	집단 1: 적응적 분노조절 (n = 30)		집단 2: 낮은 분노 관여 (n = 24)		집단 3: 높은 분노 관여 (n = 23)		집단 4: 억제형 분노조절 (n = 13)		F(3, 86)	Scheffè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거만 (Domineering)	6.70	0.45	7.92	0.50	9.13	0.51	7.54	0.68	4.29*	3>1
참견 (Intrusive)	9.43	0.61	9.71	0.68	11.57	0.69	9.15	0.92	2.32	
과잉보호 (OverlyNurturant)	9.60	0.59	9.46	0.66	11.35	0.68	10.46	0.90	1.73	
착취 (Exploitable)	9.60	0.57	8.54	0.64	10.35	0.65	12.15	0.87	4.00*	4>2
비주장 (Nonassertive)	10.07	0.68	9.42	0.77	11.09	0.78	13.31	1.04	3.38*	4>2
회피 (SocialAvoidant)	8.07	0.60	8.04	0.67	9.61	0.69	13.46	0.92	9.48*	4>1,2,3
냉정 (Cold)	6.87	0.55	7.50	0.61	8.83	0.63	10.15	0.83	4.44*	4>1
악의 (Vindictive)	6.27	0.42	6.42	0.47	9.52	0.48	10.08	0.64	15.63*	4,3>1,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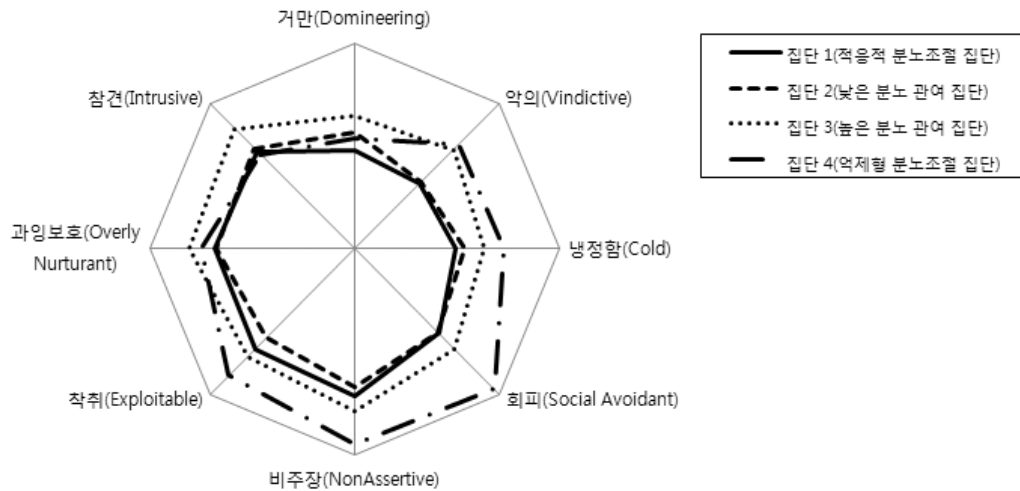


그림 2. 분노표현양식 하위집단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단 4(억제형 분노 조절 집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 중에서도 착취, 비주장, 회피, 냉정함과 같은 회피형 대인관계문제를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도출된 집단이 다른 대학생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다시 한 번 실시하고, 각 하위집단에 따라 삶의 전반적 행복지수 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93명(남 35, 여 58)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6세($SD = 2.40$)였고, 설문 응답에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분노표현양식

연구 1에서 사용한 분노표현양식 척도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행복 지수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삶의 만족 문항에는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을 포함했고, 정서적 행복 문항들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면서도 이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서들을 추출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서 문항에 각성 수준 고·중·저의 정서를 모두 포함하여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도 기존의 척도들(Watson, Clark, & Tellegen, 1988; Diener, Smith, & Fujita, 1995; Diener *et al.*, 2009)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9문항의 내적합치 신뢰도 계수는 .76에서 .85 수준이었다.

자료분석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대학생 표본에서도 동일한 군집 유형이 도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분노표현양식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각 하위 요인들의 중심 값은 다시 K-평균 군집분석의 초기 값으로 투입되어 최종 집단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 별로 삶의 전반적 행복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교차타당화를 위한 집단 구분

먼저 연구 1과 유사하지만 다른 대학생 표본($N = 93$)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해 연구 1과 동일한 패턴의 집단이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워드(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1과 유사하게 네 개의 집단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군집의 수를 네 개로 고정하여 K-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은 40명(43.0%),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는 19명(20.4%), 집단 3(높은 분노 관여 집단)은 25명(26.9%),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는 9명(9.7%)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차원에 대한 각 집단 별 패턴이 연구 1과 유사하게 나타나 연구 1에서 확인된 집단의 특성이 다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도 유사하게 발견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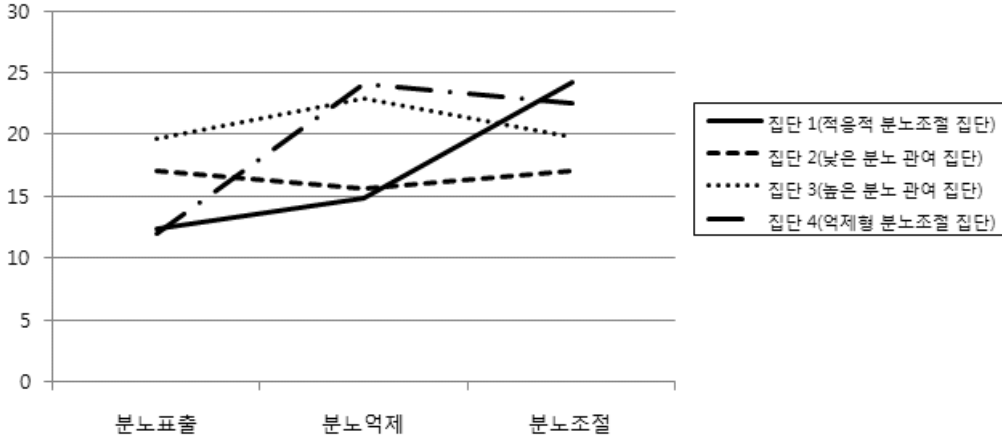


그림 3.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집단 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없었다 [$\chi^2(3, N = 93) = 4.70, p > .05$].

행복지수에서의 집단차이 비교

연구 1에서는 각 집단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로서 대인관계문제를 살펴보았다면 연구 2에서는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반적 행복지수 측정 설문지(COMOSWB)를 통해 살펴보았다. 네 개의 집단이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3, 89) = 10.07, p < .0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의 행복지수($M = .63, SD = .85$)가 다른 세 집단의 행복지수(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 : $M = -.14, SD = 1.29$, 집단 3(높은 분노 관여 집단) : $M = -.51, SD = .77$,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 : $M = -.66, SD = .87$)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상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집단들이 대인관계문제와 행복지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분노표현양식에 있어 개인마다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분노표현양식 하위집단별 표준화된 행복지수 비교

구 분	집단 1 적응적 분노조절 (n = 40)		집단 2 낮은 분노 관여 (n = 19)		집단 3 높은 분노 관여 (n = 25)		집단 4 억제형 분노조절 (n = 9)		F(3, 89)	Scheffé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표준화된 행복지수	0.63	0.85	-0.14	1.29	-0.51	0.77	-0.66	0.87	10.07***	1>2,3,4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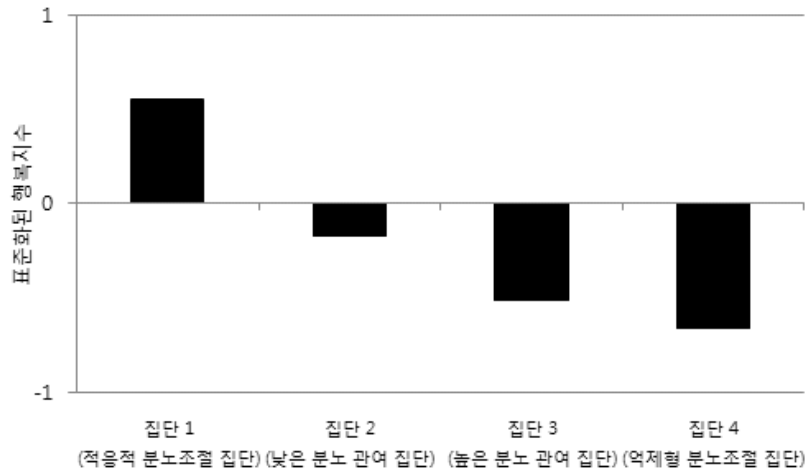


그림 4.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집단에 따른 행복지수 차이

총 네 개의 하위집단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집단들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조절에 있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에서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의 차이가 주목할 만했다.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는 분노억제에서만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응적인 집단과 가장 비적응적인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이 분노조절을 가장 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으로 분류한 것(Biodeau, 1992; Gottlieb, 1999)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특기할 만하다.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의 분노조절 수준은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이 보여준 분노조절 수준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의 특징이 네 개의 집단 중 가장 비적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노조절만이 아니라 분노억제도 같이 고려해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의 차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달리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는 높은 수준의 분노억제와 높은 수준의 분노조절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들이 분노를 억제함에 있어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노표현양식의 척도에서 분노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

보면, 13번 문항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와 20번 문항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분통이 더 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고 싶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King, 1993; Katz & Campbell, 1994; Mongrain & Zuroff, 1994)들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심리적 문제는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음을 볼 때,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보여주는 대인관계문제와 행복지수의 비적응적인 패턴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Gross(2001)의 정서 통제에 대한 절차 모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분노억제는 개인에게 분노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이미 유발된 뒤 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억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느꼈던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Gross와 John(2003)이 주장한 것처럼 억제 방법은 겉으로는 감정을 잘 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리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하며, 정서의 회복이 더디고,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감정들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따라서 억제를 많이 하는 사

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적게 느끼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며,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깊은 관계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분노억제를 가진 군집이 더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고³⁾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더 많은 회피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관적이다.

하지만 분노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는 집단보다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행복 수준을 보여주었다.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은 동일하게 낮은 수준의 분노억제 성향을 보여주었지만, 더 낮은 수준의 분노표출과 더 높은 수준의 분노조절을 보인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의 행복 수준이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높은 분노억제 수준을 가진 집단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분노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서양의 문화차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동양의 집합주의 문화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집단지향적인 성취를 강조한다. 집단지향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충동이나 욕구 등을 억제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Ho, 1995; Tu, 1994) 개인이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분노억제 수준이 높은 군집이 행복하지 않음에도 분노억제라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까닭은 집합주의 문화에서 분노억제 전략이 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Matsumoto, 1989; Matsumoto & Ekman, 1989; Matsumoto *et al.*, 1988)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기존의 분노표현양식과 관련된 연

구들과 비교할 때 차별점 중의 하나는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을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차원 가운데 하나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와 같이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이 모두 높은 집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집단은 정상적인 분노조절 수준을 넘어 병리적인 수준까지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서 표현에 대한 양가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시에 남들이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부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느라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내적 긴장 상태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지거나 수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하여 관계적, 심리적, 생리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Mongrain & Vettese, 2003). 만약 분노표현양식의 하위 요인을 차원이 아닌 하나의 유형으로 해석하여 분석을 했다면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는 단지 분노억제 집단이나 혹은 분노조절 집단에 분류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연구 1의 군집분석 결과를 비슷한 집단의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군집분석은 분석방법상 본질적으로 탐색적이고 표본 특정적(sample-specific)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참가자들의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참가자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유사한 패턴의 집단이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였다. 또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한 대인관계 문제 대신에 집단 간에 행복지수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각 집단이 갖는 성격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정신 질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정신 건강의 고전적 정의를 넘어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을 추구하는 현대의 정신건강 개념(Keyes, 2002; 2005)과도 방향이

3) 본 연구에서 전반적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COMOSWB 척도(서은국, 구재선, 2011)는 행복지수의 산출을 위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의 수치를 합한 값에서 부정적 정서의 수치를 빼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각 집단이 보여주는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지수에서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 없이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단 4(억제형 분노조절 집단)가 보이는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지수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노억제에 대한 양가성 때문이라고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했고, 집단 1(적응적 분노조절 집단)과 집단 2(낮은 분노 관여 집단)의 차이를 해석할 때도 집합주의 성향에 대한 경험적인 측정 없이 분노억제 전략이 적응적인 대인관계 전략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기존의 연구나 문헌들을 참고하며 결과를 보다 타당하게 해석하려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가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증거를 경험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군집분석에 사용된 참가자의 숫자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군집변인으로 투입되는 하위 요인의 수에 따라 필요한 참가자의 숫자가 달라지지만, 군집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참가자의 숫자를 몇 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공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Formann(1984)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군집분석을 실시할 때 참가자의 숫자는 '군집변인의 숫자 X 10'이 권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군집변인은 3개이고, 참가자의 숫자는 두 연구 모두 90명 이상이었으므로, Formann의 제안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참가자의 숫자가 본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높여 줄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분노 수준과 강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단지 분노표현양식의 차이만 다루었기 때문에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다 점, 그리고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할 때 대한 자기보고 측정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상황 특정적 맥락에서 설문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이 제한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노표현 사건에 대한 분노표현 과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찰하는 등 다

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본에 따라 다른 하위집단의 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 국내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중년 여성, 청소년, 노인 집단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집단의 분노표현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 1001-1017.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96-114.
- 조공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85-106.
- 조공호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사상: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21-53.
- 조공호, 김지연, 최경순 (2009).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69-90.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 479-492.
- 한덕용, 이장호, 전경구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 18-32.
- Bell, P. A., & Byrne, D. (1978). Repression-sensitization. In H. London & J. E. Exner(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pp. 449-485). New York: Wiley.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 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riggs, J. (1970). *Never in anger: Portrait of an Eskimo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ohen, C. R., Chartrand, J. M., & Jowdy, D. P. (1995).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447.
- Cox, T., & McCay, C. (1982). Psychosocial factors and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 in the aetiology and development of cance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6*, 381-396.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0-141.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 Biswas-Diener, R.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Ekman, P. (2003). *Emotions revealed*. New York: Times Books.
- Ekman, P., & Friesen, W. V. (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1*, 49-98.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McGraw-Hill.
- Formann, A. K. (1984). *Die latent-class-analys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anwendung*. Weinheim: Beltz.
- Fridlund, A. (1997). The new ethology of human facial expressions. In J. A. Russell & J. M. Fernandez-dols (Eds.), *Th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 (pp. 103-1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man & Booth-Kewley (1987). Personality, type A behavior, and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83-792.
- Giese-Davis, J., & Spiegel, D. (2001). Suppression, repressive-defensiveness, restraint, and distress in metastatic breast cancer: separable or inseparable constructs? *Journal of Personality, 69*, 417-449.
- Goldstein, H. S., Edelberg, R., Meier, C. F., & Davis, L. (1988). Relationship of resting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to experienced anger and expressed anger. *Psychosomatic Medicine, 50*, 321-329.
- Gottlieb, M. M. (1999). *The anger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Gottman, J. M. (1993). The role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 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237.
- Gros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in adulthood: Timing is everyth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s, 10*, 215-21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 D. Y. F. (1995). Selfhood and identity in Confucianism, Taoism, Buddhism, and Hinduism: Contrasts with the West.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25*, 115-139.
- Jensen, R. (1987). Psychobiological factors predicting the course of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55*, 317-342.
- Jerome, E. L., & Liss, M. (2005).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341-1352.
- Kala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Australia: Thomson (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역. 정서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 Kappas, A., Bherer, F., & Theriault, Melanie (2000). Inhibiting facial expressions: Limitations to the voluntary control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Motivation and Emotion*, *24*, 259-270.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207-222.
- Keyes, C. L. M.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539-548.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g, L. A., &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 131-150.
- Lee, D-G. (2003). *A cluster analysis of procrastination and cop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Lerner, E. A., & Dodge, K. A. (1993). The development of anger and hostile interac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537-546). New York: Guilford.
- Lutz, C. (1988). *Unnatural emotions: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atsumoto, D., & Ekman, P. (1989). American-Japanes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universal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 Motivation and Emotion*, 13, 143-157.
- Matsumoto, D., Kudoh, T., Scherer, K., & Wallbott, H. (1988). Antecedents of and reactions to emo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9, 267-286.
- Mongrain & Zuroff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 Mongraine & Vettese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45-555.
- Oatley, K., Keltner, D., & Jenkins, J. M. (2006). *Understanding emotions* (2nd ed.). Cambridge, MA: Blackwell.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 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pielberger, C. D., Kranse,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203-222). Washington, DC: Hemisphere.
-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Culture and emotion: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pp. 285-3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u, W. (1994). Embodying the universe: A note on Confucian self-realization. In R. T. Ames, W. Dissanayeke & T. P. Kasulis (Eds.), *Self as person in Asian theory and practice* (pp. 177-18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93-1070.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Problems and Happiness by the Subgroups of Anger Expression Styles

Sanghyuk Park Yunkyoung Loh Eun Hye Cho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undertaken with two sub-studies, examined the subtypes of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the sub-factors of anger expression styles (Anger-In, Anger-Out, & Anger-Control) and their differences on the scor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happiness. In Study 1 ($n = 90$), the results from a two-stage cluster analysis entering the sub-factor scores as the clustering variables suggested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adaptive anger-control group, low anger-involving group, high anger-involving group, & suppressive anger-control group). Additionally, a MANOVA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n the scores of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the four groups. As a result, suppressive anger-control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 of relationship problems among the four groups. In Study 2 ($n = 93$), another two-stage cluster analysis with the second sample of college students was performed to validate the presence of the four groups extracted from Study 1. The results provided additional support for the four groups. In addition, the results of a one-way ANOVA, adaptive anger-control group reveal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happiness than the other three groups. Finally, this study ends with th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yles and mental health.

Keywords: Anger expression styles, interpersonal problems, happiness, cluster analysis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0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8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8월 24일